

인도네시아의 2014년 대통령 선거에 대한 중간분석

작성자 : 박재봉 (한국외대 동남아연구소)

작성일 : 2013년 8월 8일

■ 2014년에 대통령과 국회의원 선거를 1년여 앞두고 있는 인도네시아 정치계에 커다란 변화가 감지되고 있음.

- 기존 정당들의 대선 출마자들을 위협하는 새로운 인물이 등장하고 있기 때문
- 근래에 인도네시아 여론조사 기관들의 대통령 선호도 조사에 따르면 현재 자카르타 시장인 조코 위도도(Joko Widodo)가 유력한 대선 후보들을 제치고 선두에 나서서 관심을 모으고 있음.
- 이번 이슈는 2014년 인도네시아 대선판세에 대한 중간점검임.

■ 2014년 대통령 선거의 배경

- 인도네시아는 대통령의 권한이 막강한 대통령 중심제 정치제도를 채택하고 있어 대통령 선거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으며 대통령-부통령 선거 절차가 독특하여 이에 대한 이해가 필요
- 대통령 후보의 난립을 막기 위해 대통령 후보와 부통령 후보가 속한 두 정당의 국회의원석 비율이 전체의 20% 이상을 넘어야 후보로 등록할 수 있는 독특한 제도
- 따라서 40여개의 정당들이 난립하는 인도네시아 정치계에서 독자적으로 20% 이상을 차지하는 정당은 많지 않기 때문에 각 정당은 대통령 또는 부통령 후보를 매개로 하여 정당간의 연합이 자주 발생
- 대통령의 임기는 연임(10년)은 할 수 있으나 3선은 불가
- 현재의 유도요노(Yudhoyono) 대통령은 2004년에 처음 당선되어 2009년에 연임에 성공하였기 때문에 2014년 선거에는 출마할 수 없는 상황
- 또한 현재의 집권당인 인도네시아 민주당은 여러 가지 부패 스캔들로 대중의 지지도가 크게 하락하여 정권 재창출의 가능성이 매우 희박한 상황
- 따라서 2014년의 대통령 선거에서 전통적인 거대 정당인 골카르(Golkar)당과 민주투쟁당(PDI-P)의 강세가 예상

■ 여론조사 분석

- 2012년의 다양한 여론조사에서는 뿌라보워 수비안토(Prabowo Subianto)¹⁾ 인
도네시아 행동당 총재이며 예비역 육군대장이 줄 곧 선두를 유지
- 뿌라보워 다음으로는 민주투쟁당의 메가와티 수카르노푸트리(Megawati
Sukarnoputri) 전대통령과 골카르당의 유습 깔라(Jusup Kalla) 전부통령 그리
고 아브리잘 바크리(Aburizal Bakrie) 총재 등이 유력한 대선후보로 거론되어
왔으나 이들 후보들의 지지도는 답보상태이거나 떨어지고 있는 상황
- 현재 집권당인 민주당의 유력 후보들은 부패 스캔들에 연루되어 대중의 인기가
급락하여 여론조사에서 언급조차 되지 못하는 상황
- 뿌라보워는 자신의 정당(인도네시아 행동당)이 전체 국회의석의 5%에 머물고
있어 대통령 후보가 되기 위해서는 15% 이상을 얻은 다른 정당의 부통령 후보
를 영입해야 하는데 현재로서는 가능성이 높지 않은 상황
- 뿌라보워가 대통령 후보가 되기 위해서는 인도네시아 행동당이 내년의 국회의
원 선거에서 10% 이상을 득표하고 다른 정당의 부통령 후보를 영입하는 것이
최상의 시나리오
- -최근에 발표된 여론조사에 따르면 조꼬 위도도(Joko Widodo) 자카르타 시장
의 인기가 급격하게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내고 있는 상황
- 3개의 여론조사²⁾에서 조꼬는 작년까지 선두를 지켜오던 뿌라보워를 모두 앞서
고 있으며 유력한 대선주자로 급부상하고 있어 2014년의 대선 판도에 큰 영향
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상황
- 2013년 중반에 이르러 조꼬의 부상은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주요한 변수가
되고 있는 상황
- 2013년 7월에 발표된 여론조사³⁾에서 조꼬는 25%의 지지를 얻어 10%에 그친
뿌라보워를 앞서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같은 당(민주투쟁당)의 유력 대선
후보인 메가와티 전임 대통령(2%)도 큰 차이로 앞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.
- 조꼬의 급격한 부상 후에 메가와티의 인기가 크게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
나고 있는 것이 유력한 정당한 민주투쟁당의 딜레마가 되고 있는 상황

■ 조꼬와 2014년의 대선 전망

-
- 1) 뿌라보워는 전임 수하르토 대통령의 딸과 결혼하여 수하르토 집권기에 군부의 강자로 군
림하였으나 수하르토의 실각과 함께 예편하여 사업가로 변신하였다가 현재는 정치계에
입문. 수하르토 딸과는 이혼한 상태. 2008년에 인도네시아 행동당(Great Indonesia
Movement Party)을 창당하여 2009년의 대통령 선거에서 메가와티 수카르노푸트리 대
통령의 러닝 메이트가 되었으나 유도요노 대통령과 부디오노(Budiono) 부통령에게 패하여
낙선한 전력이 있다.
 - 2) 여론조사 결과에 대한 분석은 Jakarta Globe "Joko the Man for 2014, but Megawati
the Kingmaker" July 25, 2013를 참조.
 - 3) Soengeng Sarjadi School of Government가 2013년 7월 24일에 발표한 여론조사 자료.

- 조코 위도도는 조코위(Jokowi)라는 애칭으로 불리고 있으며 중부 자바의 수라카르타(Surakarta) 시장을 7년간 역임한 후에 2012년에 민주투쟁당이 자카르타 시장후보로 영입하여 당선된 정치가
- 조코는 1961년에 수라카르타에서 출생하였고 이슬람 신자이며 가자마다 대학교 임학과를 졸업한 사업가 출신의 정치가
- 조코가 수라카르타와 자카르타 시장을 역임하며 참신하고 유능한 정치가의 이미지 형성에 성공하여 인지도를 높여가고 있지만 중앙정치 무대에 진출한지 얼마 되지 않아 민주행동당의 대선 후보가 될 수 있을지는 아직도 미지수
- 민주행동당의 설립자인 메가와티 전임 대통령이 대선 후보로 출사표를 던진 상황이라 조정이 쉽지 않은 상황으로 향후 메가와티의 정치적 선택이 조코의 정치적 미래 뿐 만이 아니라 2014년 대선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되고 있음.
- 2014년 국회의원 선거에서 민주행동당이 20% 이상⁴⁾을 획득하여 독자적으로 대통령과 부통령 후보를 낼 수 상황이라면 조코를 메가와티의 부통령 후보로 만들 수 있을 것으로 예상
- 조코가 민주행동당을 탈당하여 신당을 창당하고 독자적인 세력을 구축하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이라고 분석되고 있음.
- 또 다른 시나리오는 골카르나 민주당과 같이 유력한 정당들이 조코를 영입하여 대통령 또는 부통령 후보로 내세우는 방안도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상황
- 조코가 새롭게 부상하면서 2014년 대선 판도는 훨씬 더 복잡하게 전개되어 가고 있으며 기존의 유력한 대선 후보들에게 위협을 가하고 있는 상황
- 1년 앞으로 다가온 인도네시아의 대선이 열기를 더해가고 있지만 40여개의 정당들이 난립한 인도네시아의 대선은 현 시점에서 예측하는 것이 매우 어렵지만 새롭게 등장한 조코 변수가 어떻게 작용할 것인지가 향후의 관전 포인트임.

4) 2009년 총선에서 현재의 집권당인 인도네시아 민주당은 20% 이상을 득표하여 유도요노가 정당에 소속되어 있지 않았던 경제관료인 부디오노(Budiono)를 런닝 메이트로 선택한 전례가 있음